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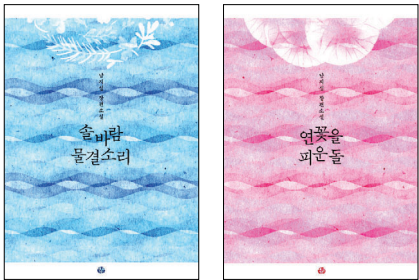
〈솔바람 물결소리〉와 〈연꽃을 피운 돌〉의 옛 표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2 ~ 10/2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산불스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7	명공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3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8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4	사찰의 비밀	자연	담앤북스	9	11일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뽀뽀	법승림마나
5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10	죽창수필	운서주평	불광출판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솔바람 물결소리 ·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예가문 펴냄 | 각권 1만3천5백원

〈우당바라〉의 작가 남지심(71)이 35년 전에 출간했던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와 2년 뒤 속편으로 출간한 〈연꽃을 피운 돌〉을 재출간했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공모 당선작품인 〈솔바람 물결소리〉는 43세를 났을 만큼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솔바람 물결소리〉

“30대 후반에 썼던 책을 70이 넘는 나이에 다시 내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놓아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작가로서의 양심이다. 진실한 만남, 진실한 사랑은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지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어서이다. 〈솔바람 물결소리〉가 다시 한번 잔잔한 물결이 되어 독자들 가슴속으로 스며들기를 순일(純一)한 마음으로 기원 드린다.” 저자는 재출간의 취지를 책의 서문에서 밝혔다.

한 여인이 이룰 수 없는 사랑 앞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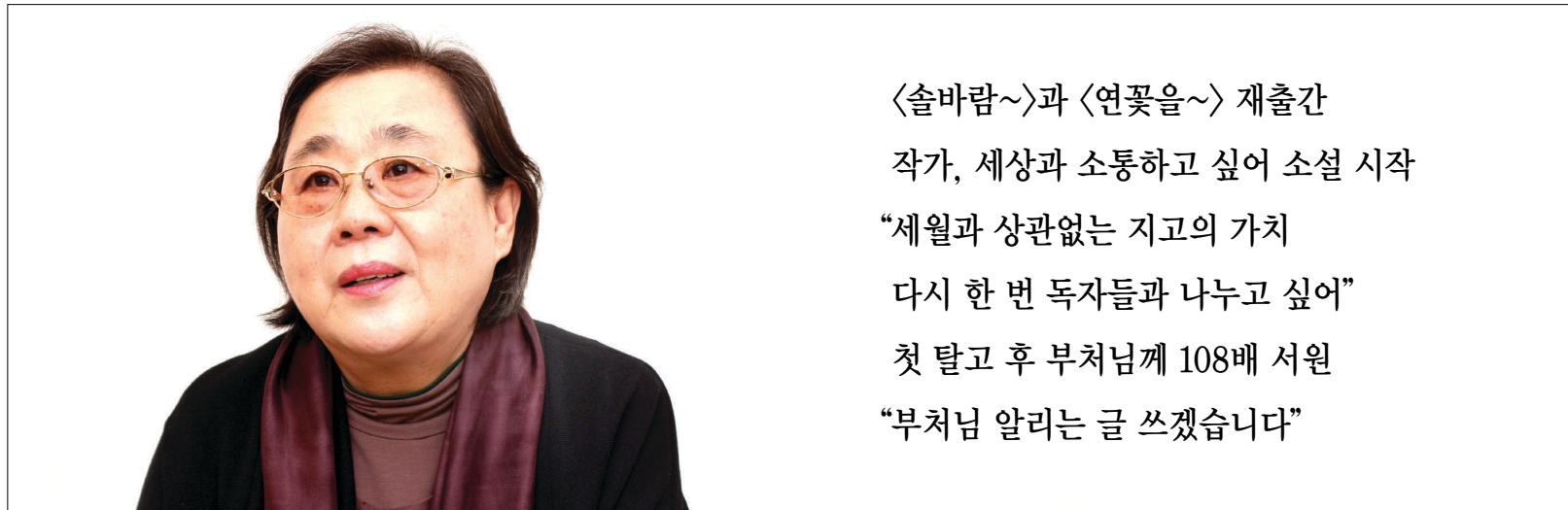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려

애쓰지 않은 ‘깊이’, 꾸밈없는 단단함

〈솔바람 물결소리〉는 저자의 첫 소설이다. 이대 사회생활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던 저자는 소설 가를 꿈꾼 적이 없는 소설가다. 그가 학교를 그만 두고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말(言)이 하고 싶어서’였다. “진정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다. 그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내고 살아야 하는 내면의 문제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소설은 초등학교 6학년 딸 자운을 홀로 남겨두고 폐암으로 죽은 미망인 강기혜(강 선생)가 죽기 전 3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한 원고를 자운과 제자 혜강이 읽어가는 형식이며, 그 원고의 내용이 소설을 이룬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홀로 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솔바람~〉과 〈연꽃을~〉 재출간 작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소설 시작 “세월과 상관없는 지고의 가치 다시 한 번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첫 달고 후 부처님께 108배 서원 “부처님 알리는 글 쓰겠습니다”

인 강기혜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자운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빠의 부재로 인한 자운이의 그늘을 바라봐야 하는 강 선생은 늘 가슴 한 구석이 아프다. 1학년 답임을 맡게 된 강 선생은 제자 혜강을 만나게 된다. 어려서 친부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솔 스님 손에 자란 혜강은 담임 선생님이 강 선생의 따뜻함으로 인해 삶의 힘을 얻게 된다. 강 선생은 다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과 가까워지고, 잊고 살았던 사랑을 다시 하게 된다. 그리고 느닷없이 다가온 죽음이 또 한 번 그녀의 삶을 흔든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삶은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소설은 인연과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근원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설은 묻는다. ‘산다는 것’에 대해.

〈연꽃을 피운 돌〉

“〈솔바람 물결소리〉에서 주인공 강기혜가 죽자. 그녀에 의지해 살았던 세 아이들인 강기혜의 딸 자운이, 강기혜의 제자 혜강 스님, 강기혜 집에 가정부 아들로 들어와 성장한 덕이가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솔바람 물결소리〉의 속편 〈연꽃을 피운 돌〉은 그렇게 태어났다. 속편 역시 39쇄를 낼 만큼 전편의 많은 관심을 이어갔다. 저자는 전편의 그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끌어안고 싶은 열망으로 후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자는 전편의 소설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것은 주인공 자운이가 다솔 스님을 사랑했던 엄마처럼 혜강 스님을 사랑하

전편에 남은 ‘세 아이들’이 집필 동기

절절한 사랑, 진지한 삶 설법처럼 흘러

아픈 사랑 결론 못내 독자에게 물어

고 있어서였다. 저자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당혹감 때문에 쓰던 원고를 밀어 놓고 얼마간 지냈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펼쳐 보이는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자는 밀어놓았던 원고를 다시 끌어안았다. 〈연꽃을 피운 돌〉은 강 선생의 딸 자운과 전편에서 출가한 혜강 스님의 또 한 편의 사랑이 소설의 큰 이야기를 이룬다. 전편의 강 선생이 살다가 울타리에 그녀가 남기고 간 삶의 인연들이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운은 신문사 기자가 되었고, 혜강은 스님 신분으로 의사가 되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혜강 스님과 자운이 만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양지와 음지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솔마을 사람들. 청솔마을을 꽃밭으로 만든 덕이. 청솔마을 최씨의 딸 용희. 혜강 스님의 도반 동광 스님. 강 선생과 다솔 스님이 남긴 삶의 궤적은 그들로 인해 계속된다. 자운과 혜강은 힘겹고 아픈 사랑을, 한시도 대만할 수 없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다. 〈연꽃을 피운 돌〉에서도 전편에서처럼 법내음이 난다. 아니 더욱 물씬 풍긴다. 의사이기 이전에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철저한 혜강 스님. 누구보다 아픔과 가까웠던 자운. 그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과 빈틈없는 삶이 빛나는 언어와 눈빛들이 뜻 있는 문장으로 다가온다.

“훈련암에 가서 기도를 해볼까? 그럼 어쩌면 내 앞에 열려 있는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혜강 스님 앞에 열려 있는 길이 무관관이라면, 그럼 내 앞에 열려 있는 길은...?” 소설은 막을 내린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마침표가 없다. 저자는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다.

“〈솔바람 물결소리〉를 쓴 후 세 아이의 생을 정리해 주고 싶어 속편 〈연꽃을 피운 돌〉을 썼는데, 막상 쓰고 보니 속제를 정리한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또 다른 속제가 남았다. 이 속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만 아릴 뿐 그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연꽃을 피운 돌〉의 원고를 달고한 저자는 다시 한 번 가슴속에서 통통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자운과 혜강 스님의 사랑이 너무 애절해서였다. 저자는 이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연을 정리하게 하는 것인지 작가는 답을 내릴 수 없다. 저자는 독자에게 묻는다. “자운과 혜강 스님의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한 생을 살게 해서 인연의 고리를 풀게 할까요?” 저자는 묻는다.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박재현 기자 wanihollo@hyunbul.com

30년만에 다시 밀려오는 감동 - 남지심 작 〈솔바람 물결소리〉를 다시 읽고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남지심 작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가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왔다. 반갑고 기쁜 일이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 당선작이었으나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새 모습으로 부활한 셈이 아닌가? 감격스러운 일이다.

내가 새로 나온 이 소설을 이처럼 반기는 것은 내가 이 소설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30여 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오는 어느 교포 신문에 연재되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이 소설이 그 당시 캐나다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던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소설에 은은히 배어 나오는 불교 정신은 내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설명해주는 불교 내용보다 더욱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서양 학생들이나 한국인 2세들이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간 신문이라 한 주일에 한 꼭지씩 연재되어 나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신문이 배달되어 올 때마다 그때그때 번역하다가 어느 새 책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되었다. 완성된 원고를 내가 가르치던 몇몇 학생들, 친구들, 내 아내에게 읽어보게 했다.

1986년 가을 교수들이 6년 가르치고 1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안식년을 맞아 서울에서 가르치기로 하고 귀국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를 보는데, ‘한국현대문학번역’ 공모에 관한 광고가 나왔다. 그 때 5.25 인치 커다랗고 얇은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서 번역물을 프린트해서 코리아 타임즈사로 보냈다. 그해 11월 초 제17회 현대문학 영문번역 장편소설 부문에서 당선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 지금도 그 때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그리고 번역된 것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느낀 감동과 여운을 잊을 수 없다.

주인공 강기혜(姜基惠) 선생님과 그의 딸 자운이, 다솔 스님, 강 선생님의 제자이자 다솔 스님이 키운 혜강이, 강 선생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덕이네와 그 아들 덕이, 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그려내는 아름답고 진솔한 이야기 장면 하나 하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머리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을 정도다. 새로 나온 책을 펴 보았다. 전보다 아름다운 표지와 시원시원한 행간이 읽기에 더욱 편했다. 지금 읽어도 역시 감동이다. 아니 30년이 지나고 읽으니 장면마다 더욱 숙연하게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전에 읽었던 독자들이나 새롭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주는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화제의 신간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점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용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세운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수풀림 supullim charcoal heating pad

숯온열뜸질기

국내 최초 식품첨가물 대나무숯 사용

대나무숯 · 참숯의 신비로운 뜸질효과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숯을 원형 그대로 넣은 특허공법 제작
- 전자파 차단용 동섬유 원단사용
- 매립형 코드 사용 신제품
- 전기요금 절약 (소비전력 60W)
- 여성 작용 효과, 뜸질효과

숯의 7가지 건강 효과

- 원력회생
- 음이온
- 항균
- 수분흡착
- 수정정화
- 냉사제거
- 전자파차폐
- 피부보호

제품 : 41cm(지름)

100점 한정판매
정가 200,000원 - 120,000원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www.supullim.co.kr